

장소성에 따른 공간구성과 표현

The Composition of Space and Its Expression According to Place

건축사 / 김춘웅 · 이원호(상지건축)

대담자 / 정무웅(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Jeong Moo-Woong vs. Kim Chun-Woong, Lee Won-Ho

일시 / 98. 12. 24(목) 10 : 00~

장소 / 상지건축 회의실



대담광경(이정수, 김춘웅, 정무웅, 이원호)

정무웅 \_\_\_\_\_ 일본속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작품을 맡아 직접 하셨던 상지건축의 김춘웅 회장님, 우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있는 한국 작품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영사관 건물이고 또 지역적으로는 가깝지만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가깝고도 먼 이국 땅 일본의 나고야 지방에 총영사관이 지어져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역적 의미로 봤을 때 감회가 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원호 소장께서는 그 당시 직접 작품을 주관하여 감리, 시공, 현장 감리까지 일본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작품이 성공리에 완성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지를 방문해 작품을 보았고 그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총영사관님과 이하 영사관 직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선 이 작품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및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춘웅 \_\_\_\_\_ 사실 조달청으로부터 나고야 총영사관 현상공모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국인이 설계한 작품이 일본땅에 세워진다면 의의가 크겠구나 싶었고 또 저희 사무실이 동경에 별도 법인의 연락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수입이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졌습니다. 다행히 접수된 13개 작품 가운데 저희 작품이 당선됐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건축의 조형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건축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영사관들이 너무 오픈되어 데몬스트레이션 등이 있을 때 파손의 우려가 많았는데 그런 인품을 갖고 저층부에 월(Wall)을 도입하는 등 건축적인 요소를 부여한 것이 나고야 측에서도 호감을 가졌고 건축 심사위원들도 그런 점을 봤기 때문에 저희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무웅 \_\_\_\_\_ 그 당시 상지건축의 지사가 일본땅에서 체인을 맺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건축의 위상면에서 상당히 주목할만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작품이 시공과정이나 감리과정에서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속에 더욱 이 나고야라는 역사적인 어떤 문명을 갖고 있는 도시속에 한국 작품이 서 있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상당히 감격적이었습니다.

건축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이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고야는 역사성이 깊은 지역인데 나고야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과 그 사이트의 도시적 특성을 엮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호 \_\_\_\_\_ 저희가 처음 현상설계를 접했을 때 그 땅에 대한 해석에 있어 한국이라는 것과 일본에 있는 한국사람, 일본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 나고야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도시맥락에서 한국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였습니다. 건축물이 서게 되는 현장을 해석했을 때 나고야라는 지역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곳으로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나고야 사람은 독특하게 느끼는 곳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도 나고야는 일본의 삼대 영웅이 태어난 곳으로 1,300년대에는 이 지역을 발판으로 세력을 키워나갔고, 2차 대전 때에는 거의 폐허가 되었다가 현재는 새로운 도시설계에 의해서 많은 녹지가 있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총영사관은 주거지역의 주택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고 새로이 형성된 대지는 나고야역에서 걸어서 5분거리의 노숙자들이 있는 슬럼화된 작은 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정된 대지에 한국이라는 땅이 하나 들어가면서 어떤 도시맥락에서 일본속에 한국을 형성시킬까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대두되었고 두 번째 문제는 정서에 대한 것으

로 '일본속에서 있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과연 한국의 것이냐 일본의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일본의 도시맥락과 나고야를 연관시켜서 생각했습니다.

정무웅 \_\_\_\_\_ 저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느꼈지만 이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디자인에 의해서 도시설계가 이루어진 도시로 오랜 역사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드러나는 물리적인 구조물이나 도시 패턴 등은 현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옛날부터 있던 역사성을 지키기 위해 어반컨텍스트라는 도시적인 문맥을 역사성과 결부시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예인데 나고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일반 방문자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새로운 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소장께서는 대지에 대한 해석을 역사, 문맥, 나고야 등의 관점에서 보다는 새로 리디자인된 도시를 바탕으로 역과의 관계, 역 앞에 형성되는 가로망이나 역 주변의 슬럼화와 결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 대지는 한국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한국 땅입니다만 법규의 적용 등의 문제가 국내에서 건축할 때에는 다를 것 같은데 치외법권 지역으로써의 일본속의 한국 땅, 그 속에 도시적인 문맥이나 도시적인 상황, 대지 주변의 상황 등은 일본의 것으로 섬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 땅은 일본 법규를 어떻게 적용받게 되는지? 나고야 속에 있는 한국 땅이 법규와 결부해 대지의 특성, 건축적인 해석 등에 있어서 한국내에 있는 대지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원호 \_\_\_\_\_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동경에 상지건축 지사격인 상지건축 동경사무실이 있었기에 일본 법규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생소하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에 국한해서 말씀 드린다면 법체계가 물론 한국법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건축법이라는 것도 체계자체가 도시맥락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지켜주어야 할

법 체계와 자체적으로 필요한 안전 등에 대한 부분에서 지켜주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대지 외곽을 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 대한 것은 일본법을 지켜야 했고 그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쓰는 대지 안에 대한 것은 일본법을 일단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법체계로 얘기한다면 허가 등의 절차를 필요로 느끼지 않은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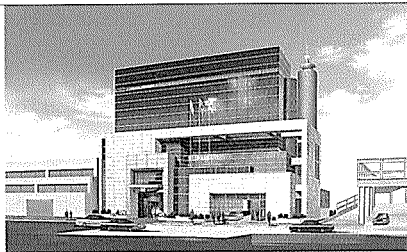
김춘웅 \_\_\_\_\_ 이소장의 얘기를 보충 설명한다면 우리의 경우 관건물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본은 신고만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다는 것은 나고야 시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면도로에서 높이 제한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과는 달라서 일본법의 적용을 받아야 했는데 사실 그런 사항은 우리는 잘 몰랐으나 동경사무실에서 해석함으로써 일종의 혜택을 받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원호 \_\_\_\_\_ 법의 두가지 체계 도시적인 것, 큰 맥락에 대한 것만 지킨다면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국 땅 해석을 했습니다.

정무웅 \_\_\_\_\_ 일본 속에 있는 한국 땅이기는 하지만 그 도시를 구성하는 의미에서와 도시적인 측면에서의 법은 일본의 법을 기초로 해서 하고 건축선이나 높이, 볼륨 관계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등은 어떤 적용을 받은 것인가요?

김춘웅 \_\_\_\_\_ 그것은 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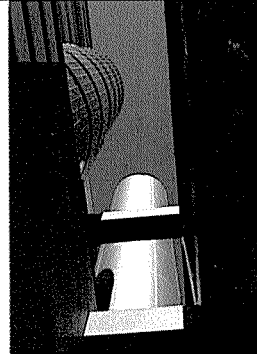
정무웅 \_\_\_\_\_ 꼭 지켜야 될 부분과 지키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지자체가 발달돼 있는 일본의 경우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도시경관, 도시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일본법규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트



나고야 영사관 투시도



나고야 영사관



내에서 1차적인 볼륨이나 매스가 결정된 내부에서의 건축적인 해석은 건축가의 자의에 의하되 다만 그 내용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군요.

이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지만 일본에 있는 한국 정부의 표현이고 한국 교민이나 한국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더불어 총영사관 건물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게도 한국이라는 이미지와 관련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을 설계할 때 내부 기능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조형적인 문제나 공간프리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을 외국에 있는 대지에 할 때 한국적인 표현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중요 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굳이 전통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국적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한국적이라는 것하고 전통적인 것은 항상 같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이 작품을 풀어나가면서 그런 의무감이나 정부에서도 한국적인 것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 은연중 부담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분께서 이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고민했으며 표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춘웅 \_\_\_\_\_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기본 컨셉을 정리할 때 이소장과 여러번 얘길 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기 때문에 한국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한국적인 분위기를 내부에서 찾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무웅 \_\_\_\_\_ 제가 그곳에 가 봤을 때의 느낌도 한국적인 것에 대한 해석을 전통적인 요소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을 상당히 절제내지 자제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우리 전통적인 공간구성의 요소들이 의도적으로 표현된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 소장께서 얘기해 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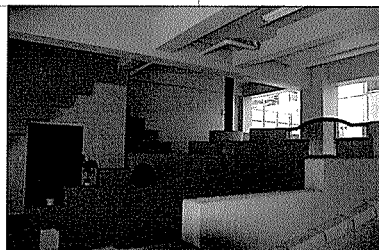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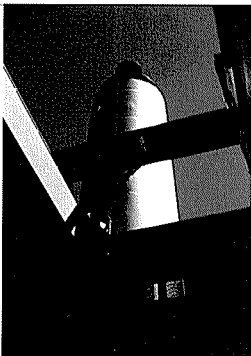
이원호 \_\_\_\_\_ 한국의 전통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 두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통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기법에 대해 많이 논의되고 있

습니다만 한국 내에서의 한국사람들만이 보고 느끼는 국내에서의 전통에 대한 문제와 국외에서 많은 외국인과 재일교포가 보고 느끼는 그러니까 국내의 백프로 정서만을 갖고 있지 않고 일본의 정서도 일부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에 대한 해석 문제로 전통에 대한 해석을 했을 때 유추나 기법, 표현 등의 느낌에 있어 그것을 보는 사람과 사용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제일교포나 일본인들이 봤을 때 한국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건축물에서의 한국적인 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간감으로 표현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에서 느끼는, 느낌에 의한 공간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외부에 하나의 물리적인 율을 씌우고 안에서는 필요한 후정 등의 요소를 주입해 진입하면서 느끼고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재료나 기법보다는 체험이나 느낌에 대한 것을 부여하는 것이 일본이라는 도시에 거부감을 주지 않고 도시맥락적인 수용도 하면서 한국 전통을 도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무웅 \_\_\_\_\_ 한국적 요소의 표현에 대한 문제를 외부 조형적인 요소나 디자인 요소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절제·자제하고 내부에서 공간의 체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설계를 할 때 기능, 동선, 조닝 등 주어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석해서 정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영사관 건축은 일반 오피스나 주택, 쇼핑몰터와도 다른 영사관 건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건축적인 요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사관건축은 기능이나 용도 면에서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다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원호 \_\_\_\_\_ 대사관과 영사관과의 차이점에 대한 해석이 첫 번째 제일 중요했습니다. 대사관과 영사관



나고야 영사관

는 비슷하면서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셉자체를 성립시키면서 두가지 양면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면성은 한국사람이나 일본사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열려져 있어 편안하게 일을 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일본내에 있으므로 해서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두 요소 열린공간과 닫힌공간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네단계로 공간을 구분, 설정하였습니다. 앞서 정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위공간과도 같은 맥락으로 첫 번째는 외부공간으로 도로에서 건물과 마주대하는 부분, 두 번째는 업무를 보거나 방문을 하기 위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접촉할 수 있는 공간, 세 번째는 한국적인 문화활동 등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 다시 말해 선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나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공간, 네 번째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세 번째 스텝까지 접근하지 않는 보안이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수직으로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지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수평내에서 필요한 공간의 위계성을 만들어서 성립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동선을 끌어 나갔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입시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외부공간은 일본의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도로상의 도시계획적인 맥락의 부분이고, 두 번째 공간은 퍼블릭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로비나 문화공간, 다목적실, 대민창고 등으로 볼 수 있고, 세 번째 공간은 한국적인 사랑방 개념으로 문화공간이나 다목적실 등의 제재를 받지않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네 번째 공간은 영사고유의 업무나 보안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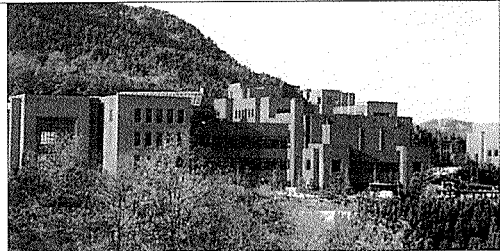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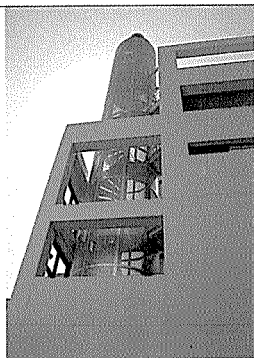
정무웅 \_\_\_\_\_ 일반적으로 가로 공간에 면해 있는 건물의 외벽은 가로 공간의 입장에서는 내벽에 해당되고 건물의 입장에서는 외벽입니다. 총영사관 건축의 고유한 시큐리티문제를 포함한 대민봉사 등등의 위계적인 공간구성을 봤을 때 독특하게 두가지 벽의 의미, 외피구성 또는 가로공간으

로 보면 내피구성의 그런 켜의 형성을 의도한 듯한데 그 형태 구성, 벽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죠?

이원호 \_\_\_\_\_ 이 대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도시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갖는 위상, 그 다음 가로에 접근해 들어올 때 조감적이 아닌 총감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영사관으로써 슬럼화된 일본의 한 지역을 개발시켜 가면서 가로적인 측면에서의 외피구성이나 형태구성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했고, 또 한가지 거기에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앞의 도로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도로 자체에서 갖는 어떤 휴먼 스케일에 대한 것으로 스케일감을 어떻게 정립시킬 것이냐하는 문제가 고민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슬럼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능적인 측면인 문턱을 낮추고 일본내 시큐리티나 보안문제를 해석하면서 작은 도로의 스케일감을 포함해서 봤을 때 하나의 자그마한 성이라는 개념이 하나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방이 내부에서 외부로 발산해서 볼 수 있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성 자체에 큰 월을 쳤고 그 월 내에 한국적인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외부의 월을 저층부에 형성시켰습니다.

그 월은 한국의 화강석을 가져다 사용했지만 월 자체에서 분할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월을 쳤을 때 작은 도로에서 생기는 스케일감에 대한 극복의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분절이나 월 내에서의 오픈 등을 가지고 그것을 완화시키는 완충역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무웅 \_\_\_\_\_ 일단 겉에 켜를 하나 형성하되 그 켜가 결코 내부에 있는 주요 매스 덩어리하고 분리되지 않으면서 연결감을 갖고 구조적으로도 연결되도록 하나의 울타리를 쳐 놓고 그 내부의 독립된 공간을 글래스 박스로 해서 솟아오르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에 대한 개념으로 저층부의 울



한국가스안전공사

나고야 영사관

타리는 한국산 화강석으로 했고 내부에 솟아오르는 글래스는 반사유리로 구성해 주변 건물하고는 다른 두 개의 커로 구성되게 함으로써 평면이나 수직의 이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원호 \_\_\_\_\_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피와 외피에 대한 개념으로 영사관이라는 것이 결국 사과를 깎을 때 사과와 빨간 껍데기와 안에 있는 노란 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사드를 봤을 때 이 건물은 2면 정도가 오픈이 되는 어떤 표정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2면은 고층건물에 의해 가려지는 상황입니다. 아래 저층부에 생기는 기단부라는 것이 결국은 도로축상에서 봤을 때는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내피에 대한 것은 기단부라는 것이 한국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위에 생기는 월, 글라스 커튼월이 내피에 대한 살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가까이서 충감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멀리서 조감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으로 도시계획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나고아라는 도시에서 보이는 부분이 되고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스케일감에 의해서 가까이 접근했을 충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텍스처 자체를 일단 분리했습니다.

정무웅 \_\_\_\_\_ 지금 텍스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텍스처라고 하면 외부의 마감재료에 관련되는 시각적인 느낌을 얘기합니다. 이 건물의 저층부는 터프한 질감의 화강석, 내피를 구성하고 있는 외벽은 반사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층부에 있는 기단부의 돌의 모듈하고 내부에 있는 글래스 모듈이 같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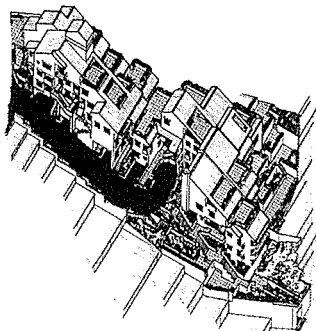
왜 미러글래스를 사용했을까? 일반적으로 미러글래스가 갖고 있는 특성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조형적인 요소로 외벽을 매끄러운 면으로 하는 소재로 통일감있는 한 면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 부분적인 투명성을 통하여 내부와 외부 공간의 시각적이거나 정서적인 관류가 유도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미러글래스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내부에서의 움직임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때 투명한 외벽의 투명성에 대한 제어장치로써 반사유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마감으로써의 어떤 색상이나 형태적으로 조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러글래스를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형성과 관계되는 것도 있고 시큐리티하고도 부분적인 관련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안에서는 볼 수 있는데 밖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시각적 문제가 고려된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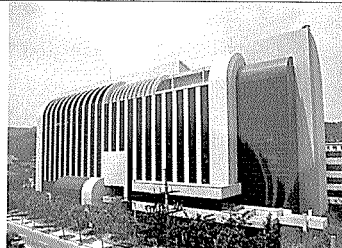
이원호 \_\_\_\_\_ 외부마감 재료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크게 기능적인 측면과 조형적인 측면으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저층부의 돌과 위의 유리는 크게 대별될 수 있지만 두가지 재료 모두 다 내부를 감춰줘야되는 보안이라든지 외부에서 내부를 투시되지 않고 감싸주는 기능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리고 조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칠게 느껴진다는 돌과 매끄럽게 느껴진다는 유리에 대한 부분으로 사람의 오감 중에서 촉감이나 시각은 거리하고 관련됩니다. 어떤 재료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따스한 재료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멀리서 봤을 때 그것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재료지만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차가운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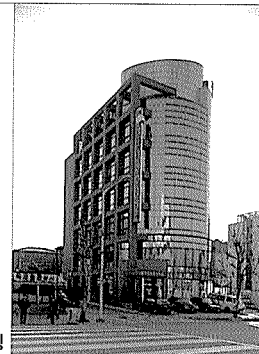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저층부 화강석 버너구이라는 텍스처가 거칠다는 것보다 친근감을 느끼고 따스하게 느낄 수 있는 재료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고층부 유리는 차갑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작은 거리에서 가로상 보다는 도시맥락적으로 봤을 때 질서정연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가지 재료를 대비시켜 놓는 경우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가까이에서 볼 때도 그 두 가지가 매치가 될 때 어떻게 볼 것이냐하는 문제는 통합요소를 써야된다는 것에서 두 가지 요소를 일단 스케일이란 요소와 모듈이라는 요소,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이태원 테라스하우스



일동제약사옥



상지빌딩

단위로 썼고 그 다음에 분절에 대한 방법을 도입해 들어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입을 시켰습니다. 두 재료를 감각적인 통합을 통해 한 재료로 통합시켜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무웅** 한국적인 표현에 대한 문제는 내부에 공간감으로 한정하기로 했고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절제하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곳에 가 느꼈을 때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직설적인 한국적인 형태나 패턴 등의 표현은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캐노피 부분이라든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한국적인 것이 모티피인 어떤 선이나 형태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디자인하는 분들이 간과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이원호** 앞서도 얘기했던 전통에 대한 표현 문제가 다시 대두 되었는데요 일본속에서 있는 한국 건축물이 무엇을 나타내고 또 무엇을 얘기해 줘야 하는 문제로 가로의 상의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와가 하나있고 또 외부에 한국적인 탑이 세워져 있을 때 한국이라는 것을 느끼고 박물관에 가서 관찰하듯이 과연 보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돌이러든지 필요한 부품을 공간으로써 외부에서 끌어준 마치 어떤 이벤트처럼 된 하나의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김춘웅** 정교수께서 얘기했듯이 현관에 들어가는 캐노피에 한국적인 요소를 넣었을 때 이 작품에 과연 어울리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외부보다는 내부 것에서 표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사용자가 한국적인 요소를 요구해 건축가가 따라가다보면 결국 작품을 실패하는 경우를 여럿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강하게 배제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정무웅** 이제까지는 외부의 월에 대한

개념, 재료에 대한 개념, 조형성에 대한 얘기, 내부에 기능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는 건축적인 얘기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건물 내부 공간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성과 결부해서 특히 강조했던 디자인 컨셉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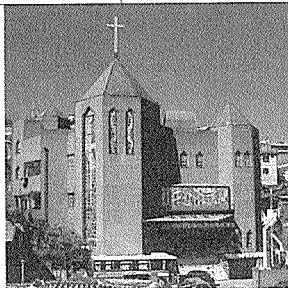
**이원호** 앞서 얘기한 네가지 기능과 결부되는 것으로 외부공간, 전위공간 등의 부분을 절단시켜 놓았을 때 스텝과 스텝 사이의 연결에 대한 부분이 숙제였습니다. 그것을 너무 절단시켜 놓았을 때 폐쇄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별개의 네 개의 공간이 따로따로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상하의 오픈이라든지 기능적으로 커버링이 되면서 필요한 부분만 오픈시켜서 시각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였고 또 하나 한국적인 공간에 대한 것으로 대지가 크다면 체험공간 등으로 많이 배려했겠지만 이 대지 자체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체험공간에 대한 것을 후정이라는 개념을 써서 자그마하게 성립시켰습니다. 그 체험공간은 다시 후정이라는 개념으로 차경적인 요소와 체험적인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뒷부분이라든지 후정을 통해 2, 3, 4, 5층에서 볼 수 있는 사랑방과 문화공간 등으로 연결되어 외부같은 내부공간으로 표현했고,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브릿지라든지 담이 있는 부분은 차경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김춘웅** 이소장이 얘기를 했듯이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한국적인 이미지를 외부보다는 내부의 요소요소에 표출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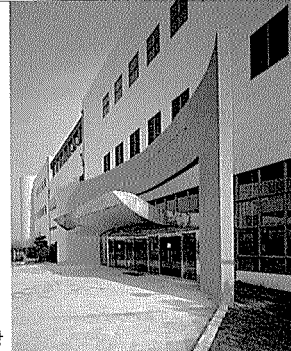
**정무웅** 2층에 있는 중정과 후정에 부분적으로 처져있는 사피석 위에 얹어있는 흑기와와 주변에 있는 운동방, 장판지, 뒷마루, 그리고 후정을 감싸고 있는 두 개의 벽체의 원자무늬 창호 등이 마당에서 건물벽을 볼 때 또는 건물속에서 마당을 볼 때 충분히 한국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거평 프레아



보문제일감리교회



시그네틱 파주공장

꿈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도했던 것과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과의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 과정, 또는 시공후 사용과정에서의 설계의도와 어떤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원호 \_\_\_\_\_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해석을 합니다. 현재 영사관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적인 모임이나 행사 등의 많은 방문이 위층까지의 공간접근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준비된 공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적인 행사가 활성화되어 나갈 때에는 그 공간이 좋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차경적인 요소로 많이 작용하고 있지만 체험적인 공간으로 앞으로 더욱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여유공간으로써 의미있는 어떤 '준비된 공간'으로 봤습니다.

정무웅 \_\_\_\_\_ 나고야총사관이 준공된 지 1년이 넘었나요? 현지에 갔을 때 물어보았더니 영사관 직원이 하루에 많이는 50여명, 적을 때는 20~30여명이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나고야는 우리 교포들이 상당수 상주하고 있고 또 교포이외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업상 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고야총영사관 건물이 더 활성화되어서 교민들이 모여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 받는 곳, 이국땅에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등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영사관님이나 직원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설계변경은 어려울지 모르나 최소한 의도했던 공간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원호 \_\_\_\_\_ 건축가가 제시해 필요한 공간이 생기고나면 그 다음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꾸미고 가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공간 자체가 용량이 좀 큰 상태이지만 다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무웅 \_\_\_\_\_ 건물은 설계하는 사람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함께 꾸며가야 된다는, 물론 설계하는 사람이 예상되는 사용자의 의도나 바람을 충분히 검토해서 디자인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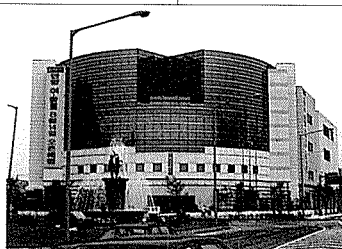
다음은 시공에 관한 것으로 보통 건축가의 설계의도대로 안되는 요인으로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현장에서의 시공은 평장이 특이합니다. 이 건물의 설계는 한국사람이 하고 시공은 한국사람과 일본사람이 조인트로 했습니다. 감리, 감독과 관련하여 일본의 법규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시공할 때 독특한 재료를 써야 된다, 법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등의 요구사항이 있기 마련인데 전체적인 시공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죠?

김춘웅 \_\_\_\_\_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대사관이나, 영사관 건물을 봤을 때 이 작품은 의도했던 설계와 시공, 사용자와의 관계가 제일 성공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작품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부분부분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기본으로 나와있던 것을 거의 100% 수용해 시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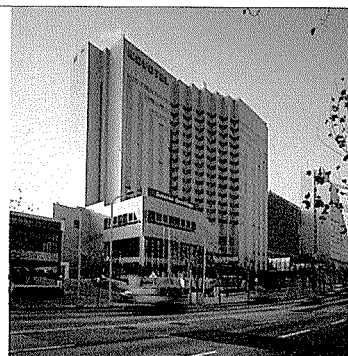
이원호 \_\_\_\_\_ 건축물이 서기 위한 시작부터 준공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현상설계 단계에서는 일본 동경에 테크노 상지(대표: 김상규)라는 상지건축 동경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술적인 문제나 일본과 한국의 시공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서울 사무실에서 주로 끌고 나가면서 동경 사무실에서 일본 사람들이 와 지원을 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맥락을 짚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의 일본 현지의 법이나 기술적인 문제, 재료도 한국적인 것과 일본적인 것을 구분해 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울 사무실 팀이 동경 사무실로 갔습니다. 하나의 캠프를 차리고 동경 사무실에서 일을 끌고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갖고 있는 구조해석이나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에 대



조선내화 분당 사옥



안양 E-Mart



노보텔 엠버서더 강남

한 것이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 국내에서는 처리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때 서울 사무실과 계속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원은 서울 사무실과 동경 사무실 반반 참여했지만 동경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많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인 갭을 많이 커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입찰부분에서는 한국의 건설업체와 일본의 사토라는 건설업체가 참여해 처리했는데 대부분의 시공은 일본 업체가 했고 감리는 한국인 1인과 일본인 1인이 했는데 동경 사무실에서 60~70%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전기는 일본쪽에서 하고 디자인에 관련된 컨셉이나 결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 사무실에서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국 정원, 완자문, 킷마루 등의 많은 한국적인 요소를 일본 시공업체가 했을 때 과연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창호지 자체도 우리 것과 일본 것이 거의 유사한 듯 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업체들이 국내에 참가할 때에는 한국적인 모양을 비슷하게 내지만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는 유사해 보이지만 일본냄새가 흐릅니다. 그것을 몇 번이고 수정시켜 나가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정무웅** \_\_\_\_\_ 시공과정에서 동경에 캠프를 차려 공동작업을 한 것이며 한국인이 현장에 감리할 수 있었다는 것, 한국업체와 일본업체가 조인해 시공했다는 것이 작가의 건축안을 현실화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던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당선안과 실시안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로 '특별히 이것이 좀 아쉽다,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때 좀 잘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원호** \_\_\_\_\_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설계자로서 사용자의 몫에 대해서 조금 더 제시해 주고 끌고나갈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하는 점으로 사용 가이드라인을 주었지만 해석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변경해 사용하는 등 제시한 공간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것

이 조금 아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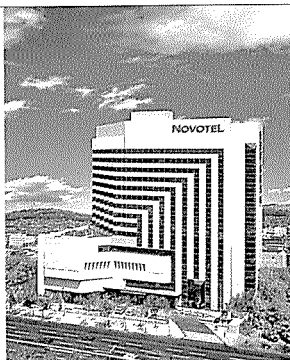
**정무웅** \_\_\_\_\_ 보통 설계를 하고나면 디자이너들이 바라는 부분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갭이 있게 마련입니다. 갭에 대한 과정은 보통 일차적으로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조절해 많은 여유있는 플렉시빌리티를 남겨 '사용자들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겠다'라는 예견을 갖고 많은 유연성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변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장님께서 서두에도 축하인사와 함께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있는 한국 작품이 작가와의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특집화되어서 나오게 됐는데 이것을 계기로 디자이너로서 또 건축가로서의 느낌이나 포부,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춘웅** \_\_\_\_\_ 작품을 항상 대할 때마다 특히 외국에 영사판을 저축가 수입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감리까지 하면서 그에 대한 포부는 국내에서 어느 작품을 한 것보다 컸습니다. 특히 일본에 우리의 일을 하나 심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일을 수입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다면 국내건축가가 외국에 작품을 설계하고 현장까지 다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시스템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집행과정의 어려운 점들을 집행하는 관에서 건축가들에게 힘을 준다면 더 좋은 작품이 탄생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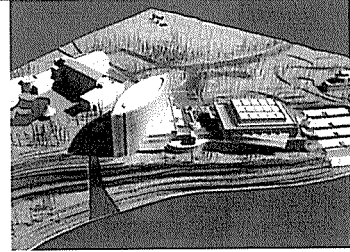
**정무웅** \_\_\_\_\_ 장시간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보텔 엘버서더 독산



일진스포월드



IB 대구 파크 호텔